

“질투하시는 하나님”

약 4:3-1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1. 질투하시는 하나님

“(약 4: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은 구약의 출 20 장 5 절의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외에 질투한다는 단어는 구약에 약 20 구절에 나타납니다.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이나 다른 것에 두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뜨겁고 화끈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도 대중 대중 하지 않으십니다. 아가서 8 장 6 절에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가 불길 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아들도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불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셔야 할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에게겐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양방향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사업을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세상 지식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이성을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자식도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절대 기쁨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나 아니면 세상과 죄를 향한 열정이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정욕으로 구하는 삶 -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벗 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만족을 위해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자기 만족에서 머무는 것은 ‘행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교생활을 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버린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필요한 것을 채우는 모습에 대해 정숙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속적인 삶을 좋아하는 모습을 세상과 벗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원수 된 삶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붙어 다녀야 하고 하나님과 단짝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붙어 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구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붙어 다니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동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약 4:7)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복 하게 되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결단을 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더 이상 치근대지 못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 4:8)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 욕심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약 4:9)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육체의 의지에 저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토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약 4:10)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정욕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은 한 젊은이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이 밝아지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주려고 왔다. 너는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청년은 배우지 못한 자요, 광부이며 정규학교도 다니지 못했음을 이야기하자, 천사가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10년후 청년 연합기도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부 웨일즈에 5만명, 북부 웨일즈에도 5만명으로 전체 10만이 회개하며 돌아왔고 이 기도로 영국 전역에 1백만명, 전세계에 1천만명의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를 채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한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부부간에(혹은 가족간에, 연인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투를 한 경험(받은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확인되고, 주고 받아야 할)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대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만한 요소는 무엇들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정리되어야 할 두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4. 내면에 은밀하게 포장된 ‘정욕적인 기도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원하실지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5.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야 할 ‘내면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